

## 시(詩)와 사상(思想)

### 1

현대의 가장 특징적 양상의 하나인 사상의 폭위(暴威)는 예술의 세계에까지 미쳐 사상의 지적(知的) 내용 여하로 시의 가치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날로 더하여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를 그의 전에 없는 오해와 멸시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시는 과연 사상의 지적 내용 여하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고구(考究)하여 보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 2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술활동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그 예술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예술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를 생각하여 보자.

우리는 일순간도 쉬지 않고 외계의 잡다한 경험군의 습래(襲來)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존재를 위하여 그 경험군을 파악하여 개념과 법칙 밑에 정리하고, 또는 질서 있는 총체적 존재에까

지 발전시킨다. 전자가 과학의 세계 즉 이성의 활동의 세계요, 후자가 예술의 세계 즉 상상력의 발동에 비롯하는 세계다. 그런데 상상력은 이성과 같이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종합하는 일종의 선택적 건설작용이므로, 예술가는 그의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징을 과장하거나, 소재의 어느 부분을 폐기하거나, 또는 비실재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할 자유를 가진다.

이리하여 예술의 세계는 독자(獨自)의 의미를 가진 자치적 실재의 세계요, 따라서 예술은 예술 이외의 아무런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자기 이외의 여하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 3

그러면, 이성의 소산인 사상과 상상력의 소산인 시는 어떻게 다른가. 「나는 사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보편적 정태(情態)의 분석 끝에 데카르트가 이런 단안을 내릴 때 그 단안은 어떠한 한 주장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물오리 떠돌아다니는  
흰 못물 같은 하늘 밑에

함빡 피어 나온 다알리아  
피다 못해 터져나오는 다알리아

정지용이 이렇게 노래할 때, 그는 그의 환각을 집성하여 놓았을 뿐,

이 시구는 아무런 요구도 주장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에 시인의 환각을 보고, 그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느낀다.

「자기의 전 존재의 노력을 가지고 자타의 생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연과 투쟁하는 것이 영원하고 의심할 수 없는 인간의 법칙이다」 할 때 이 사상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락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의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실행케 함으로써 비로소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시는 우리에게 외적 목적을 의식케 하거나 그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꿈속으로 인도한다. 그리하여 이 꿈에서 깬 때 우리는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진다.

아지랑이 조름 조는 마을 길에 고달퍼  
아름아름 알아질 일도 몰라서  
여윈 볼만 만지고 돌아오노니

이곳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헤매일 꿈길이 있다. 이에 우리는 시인은 「사상이 이르지 못하는 들에 사는 환영의 키스로 양육되는 사람」(셀리)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으며,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정치적 시는 타기(唾棄)할 시다」 한 괴테의 말의 진의를 이해할 수가 있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와 사상은 전연 딴 세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지적 내용 여하로 시적 가치를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많음은 무슨 까닭일까. 나는 그 원인이 시와 사상의 독자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있거니와, 시와 주제, 형식과 내용의

구분에 대한 이해의 결핍과 그 구분의 혼동에 더 많이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재래에 많은 사람이 시의 주제(소재)와 형식을 대립시켜 왔다. 그러나, 브래들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주제가 대립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불가분의 융합으로서 구성된 시 전체다. 따라서 주제는 시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외부에, 그것이 예술품에 있어서 표현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제는 시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발견한 것이며, 시인은 그것을 그의 예술적 능력의 대소에는 관계없이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들러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술가가 자기의 전 유재산인 사상을 표현할 때도 그 사상은 예술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 그 사상은 그것이 훌륭한 예술품에서 추출된다고 조금도 위대하여지지도 않거니와 졸렬한 예술품에서 읽혀진다고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제와 시 전체는 명료히 서로 대립하는 것이므로, 소재인 사상 여하로 시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에 가까운 일이다.

5

다음에 내용과 형식의 구별에 대하여 생각하여 봄으로써 이 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료히 하여 보자. 가치의 궁극적 원리의 문제에 저촉하지 않는 한, 즉 형식과 내용이 미적 관조자에 대하여 존재하는 대상의 외면 또는 표면 형식과 내부적으로 경험된 것 또는 감정적으로 경험된 심상을 의미하는 한, 우리는 이 구별을 용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의 이 구별은 우리가 예술적 경험을 떠나서, 이념의 실현이 아니라 실현된 이념을 반성하는 사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시의 전체적 경험을 잊지 않고, 그 전체적 경험의 좀 더 풍부하고 강렬한 반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브래들리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봄으로써 스스로 명백해진다.

「시를 읽을 때에 그 시를 분석도 비판도 하지 않고, 그 시를 다시 창조하려는 상상력의 활동에 의하여 한 줄 한 줄 시가 부여하는 인상을 충분히 감득하면서 읽어갈 때에, 그대들은 의미 또는 내용과 언어로 표현된 음을 별개의 것으로서 이해하고 향수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여든지 두 가지를 서로 조합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는 우리는 부정적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열에 불타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그 열정을 표현하는 그의 얼굴의 선과 그 선이 표현하는 감정을 따로따로이 감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의 선과 감정을 구별하여 이해할 수가 없는 바와 같이,

오리 모가지는  
호수를 감싼다.

오리 모가지는  
작고 간지러워

할 때에 우리는 오리 모가지와 호수의 형상과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그 음향을 따로따로이 경험하거나 동시에 병렬해서 경험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진정한 시적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용과 형식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시적 가치는 그것만으로서 구별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이나 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형

식 여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형식과 내용을 결합한 데도 있지 않고 다만 그 양자의 구별이 소멸할 때에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을 구별하여 놓고 내용을 편중함으로써 빠지기 쉬운, 사상 여하로 시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6

나는 지금까지 사상이 시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사상의 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부인하려 한 것은 아니다. 괴테와 밀턴이 「영원의 노력」과 「인류의 타락」을 주제로 하지 않고 「파리의 번식력」과 「모기의 죽음」을 주제로 하였을진대, 우리는 오늘날 〈파우스트〉나 〈실락원〉을 읽을 행복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위대한 사상은 그것이 위대한 시인의 상상력을 만날 때 걸출한 시를 낳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졸렬한 시인은 「영원의 노력」과 「인류의 타락」이라는 위대한 제재를 가지고도 위대한 「파리의 번식력」과 「모기의 죽음」을 주제로 한 시보다도 더 졸렬한 시를 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그것이 위대한 시가 되려면 그것은 먼저 시인의 상상력 속에 완전히 용해하여 감정화하고 성격 있는 정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시는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라 기쁨」(코올리지)을 부여 줄 수가 있으며 사상이 비로소 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언제나 그에 포함된 사상의 지적 내용 여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정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실락원〉의 작가 밀

턴이 「시는 단순하고, 감각적이고, 열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것도 이를 말한 것일 것이다.

(《시원》, 1권 5호, 1935. 12. 1)